

보도

기숙사를 나오는 학생들… 높은 기숙사비 때문?

기숙사 공실률 원인 분석

이후승 기자 hoooseung.lee@knu.ac.kr

【국제】 학생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기숙사 공실률이 해가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정원 공실률은 2015년에 0%로 빈 방이 없었다. 하지만 2016년에는 0.96%로 소폭 상승하더니 올해는 큰 폭 상승한 2.47%를 나타냈다. 제2기숙사의 실태는 더 심각하다. 2015년에는 0.5%, 2016년에는 0.41%에 불과했던 공실률은 2017년 무려 6.47%로 치솟았다. 학생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기숙사의 공실률이 높아지는 이유를 설문을 통해 알아봤다.

기숙사 측은 매 학기 퇴사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다. 2017학년도 1학기 우정원·제2기숙사 퇴사생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정원과 제2기숙사의 만족도는 각각 50.9%와 48.5%로 나타났다. 생활관 유증근 계장은 절반에 가까운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공실에 대해 “수용률이 점차 감소하는 이유는 발달하는 교통요건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학교 일대에 늘어나는 원룸촌도 하나의 이유”라고 했다.

대학주보는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기숙사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숙사 자체 설문조사와 달리 기숙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우정원과 제2기숙사에서 각각 퇴사한 학생들은 가장 큰 퇴사 이유로 비용(제2기숙사, 60.3%)과 노후된 시설(우정원, 50.2%)을 꼽았다.

가장 대표적인 불만은 ‘비싼 비용’으로, 전체 응답자의 81%가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유 계장은 “서울캠퍼스에 새로 만 들어진 행복기숙사의 가격이 국제캠퍼스 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반발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한다”며 “우리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이 수도권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공실이 많아질수록 기숙사비 인하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했다.

국제캠 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서천동 일대 원룸은 평균 7.9평, 38만원 거래되고 있다. 우정원은 2인실 기준 월 35만 원 정도, 제2기숙사는 월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원룸으로 나가면 기숙사와 비슷한 비용에 훨씬 편하고 쾌적한 시설을 훈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주관식 답변으로도 ‘시설과 환경에 비해 기숙사비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한 응

답자는 ‘주변 시세에 비해 독보적인 장점이 없다’고 했다.

식단에 대한 불만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자체 설문조사에서 우정원 식단은 53.9%, 제2기숙사 식단은 60.9%의 불만족 수치를 보였다. 대학주보 설문조사에서도 주관식 의견으로 ‘가격이 비싸도 괜찮으니, 그에 맞는 시설과 식단을 제공해 달라’, ‘학식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식단’과 같은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식단의 가격에 비해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학생 의견에 대해 기숙사 측은 “사실 식단이 가장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기숙사 식단이 인상을 위해서는 총학생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전임 총학생회는 이를 거부했다. 유 계장은 “지금 가격으로는 현재의 식단이 최선이다”며 “가격이 인상되어야 지금보다 더 나은 식자재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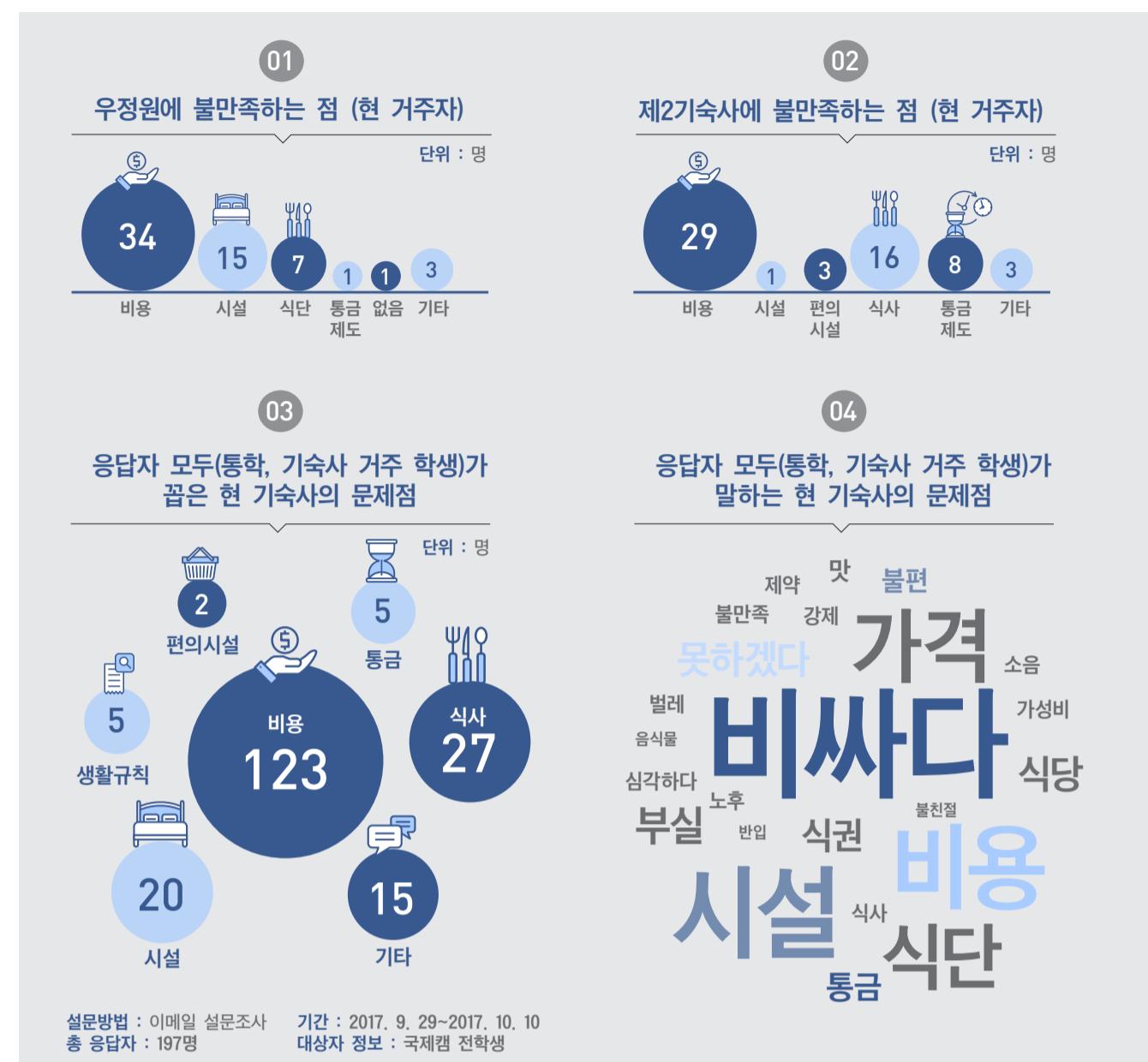
기숙사 측은 내년부터 기존 식권 단체 구매 할인 제도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학기 초 식권을 대량으로 할인받아 구매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학생회관 식당처럼 정가 3,200원에 식권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단체 구매에 제공하던 할인을 폐지해 상승분만큼은 식자재비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정원을 나온 학생 중 50.2%는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당분간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2019년 2월까지인 GS건설과의 기숙사 운영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학교 주도로 시설·환경 개선이 힘들다. 기숙사 측은 “우정원의 경우 환경 개선을 하고는 있지만 시설이 워낙 노후하다 보니 티가 나지 않을 뿐이다”는 말을 하며 학생들을 불만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숙사 측은 “주어진 여건에서 학생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늘 노력한다”며 “불만 사항을 개선해주면 개선점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또한 “방에서 벌레가 나오게 하지 않기 위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 통금을 만든 것이지 절대로 통제 목적이 아니다”는 말을 덧붙였다.

현재 기숙사는 학생의 불만을 접수하고 개선을 한다고는 하지만 불만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온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도 불만이 나오는 것이 고민이라는 기숙사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학생들의 간극은 꽤 넓어 보인다.



우정원 논란 일으킨 노컷뉴스, 반론보도 게재

이수형 기자 dltdt112@knu.ac.kr

언론중재위원회가 노컷뉴스의 우정원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왜곡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노컷뉴스에 반론보도를 명령했다. ‘기숙사비 왜 비싼가 봤더니… 14년 동안 백억 챙긴 경희대’를 보도한 노컷뉴스는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우리학교의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우리학교는 해당 보도가 있는 직후인 지난 7월, ‘해당 기사는 오보이니 기사 정정을 명령해 달라’는 취지로 언론중재

위에 조정을 요청했다. 언론중재위는 우리학교가 요구한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를 명령했다. GS건설이 우리학교에 발전기금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니 오보로 인정되진 않았다. 하지만 노컷뉴스가 이 사실을 우리학교에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 우리학교의 반론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받았다.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라 노컷뉴스가 게재한 반론보도는 다음과 같다.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7월 7일자 사회면 ‘기숙사비 왜 비싼가 봤더니… 14년동안 백억 챙긴 경희대’, 7월 14일자 사회면

‘14년간 100억 챙긴 경희대, 기숙사 ‘편법’ 운영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경희대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편법으로 이익을 취해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희대학교 측은 “GS건설로부터 발전기금 항목으로 받은 100억원은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관리운영권(사용수익권)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며, 이 임대료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고 있다. 또한 해당 임대료는 기숙사 운영자금(각종 보험, 인터넷 회선료 등), 장학금, 기숙사 수선비 등 전액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HMC투자증권이 현대차투자증권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새 이름, 새 마음으로 고객님의 내일을 함께하였습니다.

현대차투자증권

HYUNDAI
MOTOR GROUP